



# Strategy & Economy

## 투자전략

Economist/Strategist 전지원

02) 3787-5231 jiwon@kiwoom.com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



## 경기 회복 시그널 강화

### 하반기 경기회복세 뚜렷해질 듯



2/4분기 GDP의 전분기 성장을 반등에도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의 부진이 나타내듯 경기 회복세를 체감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선행지수 순환변동치의 반등세가 시사하듯 하반기 경기는 회복세가 뚜렷해질 전망입니다.

#### >>> 광공업생산, 소매판매, 설비투자 전월대비 증가

6월 광공업생산은 전월대비 0.4% 증가. 제조업생산은 석유정제(9.4%), 기계장비(4.9%) 등의 영향으로 전월대비 0.4% 증가. 제조업재고는 전월대비 1.3% 감소. 제조업평균 가동률은 75.6%로 전월에 비해 0.1%p 상승.

소매판매는 차량연료 등 비내구재(1.6%)와 가전제품 등 내구재(1.5%)가 늘어 전월대비 0.9% 증가.

설비투자는 기계류, 운송장비에서 투자가 증가하여 전월대비 4.5% 증가. 국내기계수주는 기타운송장비, 운수업 등에서 수주가 늘어 전년동월대비 14.5% 증가.

#### >>> 경기선행지수 반등세 지속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건설기성액, 비농림어업취업자수, 내수출하지수 등이 증가하여 전월대비 0.2p 상승.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건설수주액, 코스피 지수는 감소하였으나, 기계류내수출하지수, 구인구직비율 등이 증가하여 전월대비 0.5pt 상승.

#### >>> 하반기 국내 경제성장률, 3.5% 내외로 상승할 전망

6월 소매판매 호조 및 선행지수 구성지표 중 구인구직비율, 수출입물가비율, 소비자기대지수의 개선은 내수부분이 교역조건 개선에 힘입어 점차 회복세를 나타내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음을 시사.

한편 제조업 재고/출하 비율이 하락하기 시작하고 있음. 이는 경기가 소순환 흐름 속 저점을 지나가고 있음을 시사. 향후 제조업 생산은 Restocking 수요가 발생하며 증가할 것.

6월 산업활동동향에서 가장 반가운 시그널은 지연된 설비투자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 제조업 가동률이 아직 완전가동 수준에 진입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설비투자 강도가 강하지는 않겠지만, 선행지표인 기계수주가 나타나고 있음을 감안하면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전망.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어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산업활동 주요지표

[전년동월(기)비, %]

			13년							
			2/4분기	6월	1/4분기	2/4분기	4월	5월	6월	
생산	전산업	전월(기)비	-0.2	-0.8	0.1	0.3	1.7	-0.6	-0.3	
		동월(기)비	0.6	0.0	0.2	1.6	3.7	1.1	0.2	
	광공업	전월(기)비	-0.5	-1.0	-0.9	-1.4	0.5	-1.0	0.4	
		동월(기)비	1.1	0.6	-1.7	-0.8	1.5	-1.3	-2.6	
	제조업	· 생산	전월(기)비	-0.5	-1.1	-0.9	-1.5	0.4	-0.1	0.4
			동월(기)비	1.0	0.5	-1.8	-0.9	1.4	-1.4	-2.7
		· 출하 - 내수 - 수출	· 출하	1.5	1.9	-2.3	-1.1	1.2	-1.6	-2.8
			- 내수	-0.9	-1.3	-2.8	-1.4	0.4	-1.7	-2.9
			- 수출	4.5	6.0	-1.7	-0.7	2.3	-1.5	-2.7
			· 재고	4.6	4.6	3.7	3.5	3.0	2.7	3.5
		평균가동률		79.0	78.4	77.1	75.5	75.4	75.5	75.6
		생산능력		2.3	2.2	1.1	1.1	1.0	1.2	1.1
	서비스업	전월(기)비	0.1	-0.5	0.3	0.4	0.5	0.1	-0.1	
		동월(기)비	1.5	1.2	0.8	1.7	2.6	1.6	1.0	
도소매업	· 생산	0.1	-0.4	-0.6	0.5	1.8	-0.3	0.0		
	· 재고	9.1	9.1	3.8	1.3	2.9	2.6	1.3		
소비	소매판매	전월(기)비	0.3	-0.4	-1.2	0.4	-0.7	0.0	0.9	
		동월(기)비	1.4	1.1	0.2	1.1	2.0	0.5	0.8	
	- 내구재	2.9	2.6	1.2	2.2	5.8	1.5	-0.2		
투자	설비	설비투자	전월(기)비	-5.0	-3.7	-4.5	-1.6	-3.8	0.8	4.5
			동월(기)비	-2.7	-7.0	-15.4	-10.6	-12.1	-11.9	-7.8
		국내기계수주	-19.8	-35.4	-10.9	10.0	-0.3	16.3	14.5	
	건설	건설기성	전월(기)비	-0.9	-1.7	4.4	6.9	9.6	-4.0	0.4
			동월(기)비	-9.7	-14.6	5.2	14.8	19.4	12.6	12.8
건설수주(경상)		-0.7	3.7	-41.2	-29.1	-18.6	-18.4	-41.0		

자료: 통계청, 주: 전년동월(기)비, %

광공업 생산, 전월대비 0.4% 증가

6월 광공업생산은 전월대비 0.4% 증가, 전년동월대비 2.6% 감소했다. 제조업생산은 반도체 및 부품(-3.7%), 영상음향통신(-6.9%)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석유정제(9.4%), 기계장비(4.9%) 등이 늘어 전월대비 0.4% 증가했다. 전년동월대비로는 반도체 및 부품(2.4%), 화학제품(3.6%)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영상음향통신(-20.7%), 자동차(-4.4%) 등이 줄어 2.7% 감소했다. 제조업재고는 전월대비 1.3% 감소, 전년동월비 3.5% 증가했다. 제조업평균 가동률은 75.6%로 전월에 비해 0.1%p 상승했다.

소매판매, 전월대비 0.9% 증가

소매판매는 오락·취미·경기용품 등 준내구재(-1.3%)는 감소하였으나, 차량연료 등 비내구재(1.6%)와 가전제품 등 내구재(1.5%)가 늘어 전월대비 0.9% 증가했다. 전년동월대비로는 통신기기·컴퓨터 등 내구재(-0.2%)는 감소하였으나,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1.4%)와 신발·가방 등 준내구재(0.9%)가 늘어 0.8% 증가했다. 소매업체별로 보면, 전년동월대비로는 편의점(9.1%), 무점포소매(8.4%), 대형마트(5.3%), 백화점(4.3%), 슈퍼마켓(3.7%)은 증가, 전문소매점(-5.2%)과 승용차·연료소매점(-0.1%)는 감소했다.

설비투자, 전월대비 4.5% 증가

설비투자는 기계류, 운송장비에서 투자가 증가하여 전월대비 4.5% 증가했다. 전년동월대비로는 자동차 등에서 투자가 증가하였으나, 일반기계류, 전기 및 전자기기 등에서 감소하여 7.8% 감소했다. 국내기계수주는 기타운송장비, 운수업 등에서 수주가 늘어 전년동월대비 14.5% 증가했다. 건설기성은 토목공사가 늘어 전월대비 0.4% 증가하였으며, 전년동월대비로도 건축공사 등의 호조로 12.8% 증가했다. 건설수주(경상)는 발전, 기계설치 등의 토목공사 수주가 부진하여 전년동월대비 41.0% 감소했다.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 vs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자료: 통계청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 반등세 지속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건설기성액, 비농림어업취업자수, 내수출하지수 등이 증가하여 전월대비 0.2p 상승했다.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건설수주액, 코스피지수는 감소하였으나, 기계류내수출하지수, 구인구직비율 등이 증가하여 전월대비 0.5pt 상승했다.

하반기 경기, 회복세 뚜렷해질 듯

2/4분기 GDP의 전분기 성장률 반등에도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의 부진이 나타내듯 경기 회복세를 체감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선행지수 순환변동치의 반등세가 시사하듯 하반기 경기는 회복세가 뚜렷해질 전망이다.

6월 소매판매 호조 및 선행지수 구성지표 중 구인구직비율, 수출입물가비율, 소비자 기대지수의 개선은 내수부분이 교역조건 개선에 힘입어 점차 회복세를 나타내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교역조건 개선 흐름은 사상최고수준의 경상수지에 따른 원화 강세 및 원자재 가격 안정화에 힘입어 지속될 것이다. 한편 제조업 재고/출하 비율이 하락하기 시작하고 있다. 이는 경기가 소순환 흐름 속 저점을 지나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향후 제조업 생산은 Restocking 수요가 발생하며 증가할 것이다.

6월 산업활동동향에서 가장 반가운 시그널은 지연된 설비투자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제조업 가동률이 아직 완전가동 수준에 진입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설비투자 강도가 강하지는 않겠지만, 선행지표인 기계수주가 나타나고 있음을 감안하면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재고/출하 vs 광공업생산 추이



자료: 통계청

국내기계수주 vs 설비투자 추계지수



자료: 통계청